



전북도 의용소방대 산불예방캠페인 19일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완주군 모악산에서 전북 의용소방대 산불예방캠페인이 김관영지사를 비롯 도내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관련기사 3면) <사진=전북도>

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역혁신성장 선도

친환경자동차 특구, 법 개정·도의 기업투자 유치 성과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법 개정·혁신제품 지정 성과 거양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기획, 산학연 참여 실증계획 수립

전북자치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수도권권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지역전략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신기술을 적용한 실증사업과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역은 최종 지정에 위해 각 특구의 차별화된 강점을 강화하고 전략적 기획을 추진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지역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9년 12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3개사업)', '20년 8월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3개사업)',

'23년 4월 '탄소 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시스템' 실증이 추가 사업으로 지정돼 '25년도 실증사업 착수를 추진 중이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LNG 중대형 상용차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제작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등 3개 실증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했으며, 투자유치(약587억원), 도의 기업유치(3개사), 특허출원(26건), 특허등록(21건)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 복합재를 활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수소 운송용 용기 제작 ▲소방차 물탱크 개발 등을 추진했다. 소형선박은 3톤, 7톤, 9톤급 총 3대를 제작 완료해, 현재 충격 및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수

소 운송용 용기는 제작 및 실증을 마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탄소복합재 용기를 활용해 기존 금속제 저장용기보다 저장량 증대 및 운영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 이어서 현재 전북자치도는 그린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신성장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적극 추진 중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사업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실증사업의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구의 최종 지정 여부는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 '빠끗'...합동지자체 추진단 구성 난항

김제시장 관할권 다툼에 불참... "군산항 운영에 도 빠져려라" 전북도, "해수부 중앙항만심의회 이후 협약식 재추진 계획"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출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도청에서 예정됐던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이 김제시의 불참으로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3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기능통합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무는 행정통합과는 다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으로 이날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을 할 계획이었다. 협약식에는 김 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각 지역구 도의원과 시·군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늦은 오후 정성주 김제시장과 서백현 김제시의장이 둘

연 전북도에 불참을 통보했다. 최근 가장 첨예한 신항만 관할권 문제로 전북도와 김제시 간의 감정이 틀어진 것이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를,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지정해 군산항과 분리하는 투포트(Two-Port)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도와 군산시, 김제시는 오는 26일 열린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출석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었다. 전북도는 자체 구성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김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기초단체의 분쟁에 전북도는 중립을 지키라'는 게 김제시의 요구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자문위 결과를 공개하라"며 도지사 주민주권을 추진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

다. 자문위 결과가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군산시와 김제시가 유불리에 따라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것이다. 결국 도가 최종적으로 자문위 결과를 제출할 뜻을 굳히자 김제시가 협약식 불참으로 돌아섰다. 정 시장은 "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며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분리해 둘 다 국가무역항으로 지정((Two-Port)하는 게 전북 입장에서 더 이익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지지자의 입장을 개진하라고 했으니 도는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김제시에 전했는데 김제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 같다"며 허탈해 했다. 도는 오는 26일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이후에 협약식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김제시 입장이 완강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관 기자

전북도, 행안부 마을기업육성사업 공모에 15개소 선정

지역 자원 활용한 공동체 경제 활성화, 국비 2억여원 확보
제품 개발·홍보·판로 지원 통해 지속가능 성장유도 됐다. 특히, 모두에(憂)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부안 '지산지공'은 김치·두부·절임배추 등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며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2억2천500만 원에 도·시군 예산을 추가 투입해 총 4억5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마을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홍보·판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미애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마을기업이 내실있게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에서 최종 결정됐다.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유형별로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정읍 '정읍정심마을관리' ▲진안 '영농회사법인 도슬담다' ▲고원의숲생태교육협동조합 ▲임실 '임실삼삼오오정촌햇살' 등 4곳이 선정됐다. 고도화 단계에서는 ▲전주 '행복나눔보물상자협동조합' ▲익산 '꿈마루협동조합' ▲완주 '푸드인원주마더쿠기' ▲남원 '농업회사법인 비즈양조' ▲아미 ▲임실 '임실레드팜농노조합법인' ▲섬진강 다슬기마을' 등 7개 기업이 포함됐다. 우수 마을기업으로는 ▲전주 '꼭두' ▲장수 '장수신농' ▲순창 '하마마을영농조합법인' 등 3곳이 선정

부안농업협동조합

부안의 천년 농업 역사
농민의 숨씨와 정성이 담겼습니다

최고명품 부안쌀 공동브랜드
천년의 숨씨

부안군과 부안지역 RPC가 공동으로 계약재배 및 관리하고 있는 <천년의 숨씨>는 계약재배단지를 엄선하고 각종 교육 및 엄격한 관리를 통해 생산된 품종의 버만 수매해 우수농산물관리(GAP)인증 관리지정 시설에서만 생산됩니다.

부안농협 브랜드쌀
풍작소리&신동진

서해안 간척지의 비옥한 토양과 천혜의 기후조건에서 생육한 질 좋은 버만 엄선해 최신 현대식 우수 농산물 관리(GAP) 인증 관리지정 시설에서만 가공하기 때문에 밥맛이 매우 우수합니다.

구입처 부안농협미곡종합처리장 063)584-6301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사전선거운동은 ‘유죄’…형 확정되도 의원직 유지할 수 있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활동의 일환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그 당시 피고인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명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무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관 기자

전북자치도, ‘찾아가는 결핵 검진’ 추진…결핵 확산 예방 나서

‘결핵예방의 날’ 맞아 오는 29일까지 결핵예방주간 운영…‘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및 ‘외국인 결핵예방 관리’ 실시

전북자치도는 오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결핵예방주간을 운영하고, 도 및 14개 시군이 함께 결핵 예방 및 검진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중점사업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기 발견하고자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과 ‘외국인 결핵예방 관리’ 등을 추진한다.

지난 23년 기준, 전국 결핵환자 수는 1만9천540명이고 우리 도는 788명으로 연간 신규로 발생한 환자 수는 640명이다.

전체 결핵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층의 결핵 환자율은 지난 21년 62.6%, 지난 22년 63.8%, 지난 23년 66.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도는 결핵 확산을 예방하고자 노인, 노숙인 등 결핵 취약계층 1만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3%인 초고령사회로 고령층 결핵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년부터 결핵발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북형 노인 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취업 확대에 따라 전북도 체류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체류 외국인은 4만8천90명으로 결핵 등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결핵ZERO,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결핵예방주간 홍보는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결핵 예방주간을 맞아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을 통해 결핵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일상 속 결핵예방 활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저소득층 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14개 시군 운영…청소·세면·식사 보조·재활운동 등 지원

전북자치도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중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14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도민은 청소, 세면, 식사 보조, 간단한 재활운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으로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 포함되며, 월 24시간에서 40시간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주소지의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북에는 총 26개의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 중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 5개소 ▲군산시 4개소 ▲익산시 3개소 ▲남원시 3개소 ▲완주군 2개소 ▲이외 9개 시군은 각 1개소씩 운영이 되고 있고, 자세한 기관 정보와 신청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합동 워크숍 개최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도·시군 공무원, 관계기관 종사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양성평등업무 추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관별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논의하며 양성평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지자체 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 이행 ▲성인지 의무교육 ▲2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합동평가 대응방안 ▲전북자치도 성주류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조영주 센터장이 ‘정책개선 이행점검 현황 및 이행을 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 강연에서는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성별영향평가를 활용해 정책개선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경 도 여성가족과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의 기본이다”며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한 전북자치도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이 합심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윤준병 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19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했고 농어촌 빈집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생상의 위해, 농어촌 경관 훼손 등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사회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서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비·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사항을 담은 제정법을 100번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도, 실무자 3백여명 대상 ‘2025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교육’ 실시

전북자치도는 19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 및 시군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3백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자치도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실무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행정제도·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도에서 ‘납부증명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 소속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아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 ▲세입관리 시스템 및 과대료·과징금 관리 시스템 사용법 ▲시연 및 실습을 통한 실무 적용 강화 ▲질의응답을 통한 시스템 운영 현안 및 개선 요구사항 수렴이 진행됐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의 자체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확대가 제한적인 지방세와 달리, 다양한 신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 담당자들



심의번호 : 제250108-중-182111호

<광고>

JMC

진안군의료원

JINANGUN MEDICAL CENTER

대표번호 : Tel. 063) 430-7000

국가 암검진 선택이 아닌 필수

"미루지 말고 꼭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 결과

<일반검진 부문 최우수 / 영유아검진·위암·대장암·자궁경부암 부문 우수 / 간암·유방암 부문 보통>

건강검진 왜 꼭 받아야 할까요?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환 및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의 건강검진

다양한 건강검진 및 세심한 관리

MRI, CT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정확한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진안군의료원 건강검진 종류

진안군의료원은 지역주민에게 정확한 검진과 세심한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일반국가검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종합건강검진	MRI, CT, 초음파 등 활용한 통합건강검진
비급여검진	재용검진, 운전면허검진, 흉포, 국제결혼, 계절근로검진 등
기타 검진	학생검진, 영유아검진

진안군의료원 건강검진 의료장비

진안군의료원은 다양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RI

CT

도,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 본격 육성

AI·로봇 활용 스마트 농업 접목…고창 김치산업 거점으로 키워 지역경제 활력 도모

도·고창군·대상(주)과 협력 기술 이전·인프라 구축…전북특별법 활용 농생명산업지구 상반기 지정

전북자치도가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 강화, 국가예산 확보 공동 대응 및 특례 발굴 등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정책 시행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9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한 7개소 중 하나인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정밀농업, 저장 기술 고도화 및 절임배추·양념 생산시설 구축 등을 통해 김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창을 전국적인 김치산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19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농업기술원, 고창군, 고창식품연구원, 지역 배추 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치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내용으로 ▲고창군 생산 기반 확대 및 농가 조직화 방안 마련 ▲AI·로봇을 활용한 작황 예측 매뉴얼 구



도는 지난해 9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한 7개소 중 하나인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를 통해 고창을 전국적인 김치산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축 및 적용 ▲김치 원료 저장기간 연장 기술 개발 및 발농업 기계화 확대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치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고창군 내 봄배추 재배 확대 및 도내 동부권(진안 등) 준고랭지 배추, 인근 부

안·정읍 지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도와 고창군은 올해 1월 대상(주)과의 업무협약 이후 생산·수확·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기술이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창산 최

고급 배추 원물 및 절임배추 유통망을 구축해 지역 농가 및 식품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는 지난 6일 대산면(김치 원료 공급단지), 공음면(김치 양념·발효식품 가공단지), 부안면(김치산업지원센터) 주민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상반기 지구 지정 고시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과장은 “고창군이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농생명산업지구(김치특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고창의 산·들·바다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해 전국을 대표하는 김치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며, “1차 원료 생산 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6차 산업으로 체질을 전환해 고창이 김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지역 모범임직원 3인, ‘상공의 날’ 장관 표창

(주)정석케미칼 김장현, 전북도시가스(주)최낙현 (주)휴비스 강정석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제52회 상공의 날을 맞아 지역 모범임직원 3명이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전주상의에 따르면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주)정석케미칼 김장현 전무, 전북도시가스(주) 최낙현 대리, (주)휴비스 강정석 사원이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주)정석케미칼 김장현 전무는 완주산업단지에서 고품질 도료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38년간 책임지면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헌신했다. 또한 지역 아동 도서 기증, 장학금 기부,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앞장섰다.

전북도시가스(주) 최낙현 대리는 지난 2005년에 입사해 20년간 전북도시가스에서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과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새만금 지역 및 탄소·수소 산업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또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쳐왔다.

(주)휴비스 강정석 사원은 37년간 삼양사 및 휴비스에서 공조냉동 설비 및 보일러 설비 개선을 통해 연간 1,582백만원 이상의 원가 절감 성과를 달성했고 이를 위해 공정 개선, 보일러 자동화 시스템 도입, 공조 설비의 효율성을 극대화 했으며 LNG 보일러 저녹스 버너교체 및 공조냉동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회사의 에너지 절감 전략을 실현했다.

특히 2022년 산업현장 교수로 위촉돼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후배 양성에 기여했고, 이용소방대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도 힘썼다.

한편, 상공의 날은 우리나라 상공임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상공의 날 표창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념식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해 매년 3월 셋째주 수요일에 열린다.

/최준호 기자

전북아파트 가격, 지방 14개 시도에서 가장 큰 폭 상승률 기록

24년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집계 결과 2.24%↑…전주종합 경기장 등 개발 호재와 구축 아파트 강세 탓

전북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방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23년까지만 해도 하락이 지속됐지만 개발호재가 기대되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북의 2025년 공동주택 변동률은 2.24%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3.65%를 밑도는

수치지만 -2.64%를 기록했던 전년도와 큰 대조를 보이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7.86)과 경기(3.16), 인천(2.51)을 제외한 부산과 대구, 대전 등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마이너스(-)행렬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 가운데 전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오름세를 보인 울산(1.07)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북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는 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지역에 최근 3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수요에 못 미친 데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구축 아파트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탓이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임박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전제적인 상승세를 주도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전주지역 수십 곳 이상에서 재개발과 가로주택 같은 정비사업이 다양하

게 추진되면서 이를 통해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가 수천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다 대한방직 같은 일반 분양 아파트도 잇따라 공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이후에는 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공급과잉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전북지역의 공동주택 48만4589가구 가운데 절반을 넘는 27만9700가구 가1억 원 미만이며 9억 원 초과 12억 원 미만은 4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준호 기자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모든 절차 영어로 진행…사업화 자금 최대 6천만원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직무대리 유승우,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19일부터 ‘2025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 및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공고부터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모델 고도화 및 현지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천만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 운영되는 투자유치 및 대.중견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이 연계

제공된다.

작년부터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지원 공간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신설 등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중기부 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신청은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 누리집(startup-korea.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고에 관한 문의는 글로벌스타트업센터(02-3440-7346, 02-2039-1629)를 이용하면 된다.

/최준호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 정기총회에서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 논의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19일 도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과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제67회 정기총회를 4월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소재철 회장은 한국건설산업 개원 30주년 기념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의 내용을 설명하며, “건설시

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발주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물량 창출, 적정공사비 확보, 산업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업계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물량 측면의 안정적 일감 확보 및 질적 측면의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사사항에서 선금급 관련 제기된 문제로 인한 주의 사항과 선금 보증수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과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제67회 정기총회를 4월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소재철 회장은 한국건설산업 개원 30주년 기념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의 내용을 설명하며, “건설시

/최준호 기자

한국새농민 전북도회 제11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18일 전북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제1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임하는 이기성 회장과 새롭게 취임하는 한강희 회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김제시 정성주 시장, 전북농협 이철환 총괄본부장 그리고 도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이취임식은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자

리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한강희 신임회장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농민 회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더 나아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 시군 농식품 연구소와 식품기업, 농생명 우수 인프라 그랜드투어 마쳐

5개월 간 140여 명 참여, 연구소별 맞춤형 기술 습득 공유…도내 첨단 인프라 식품기업들에 소개·기업지원방안 안내

전북자치도가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농생명 혁신 기관 우수 인프라 그랜드 투어’가 19일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서의 마지막 견학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을 시작으로 총 6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5개월간 81개 기업, 1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해 도내 농생명 연구소의 우수 인프라를 직접 경험하고 식품산업의 혁신 동향을 파악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7개 기업, 11명), 진안홍삼연구소(20개 기업, 26명), 고창식품산업연구원(11

개 기업, 22명),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19개 기업, 34명), 정읍농축산유통미생물센터(13개 기업, 23명),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11개 기업, 20명)에서 진행됐다. 현장 투어에서는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소스산업화센터 ▲농생명·농업지원 분석센터 ▲GMP 설비 등 첨단 인프라를 견학하고, 최신 연구 성과와 기술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과 협력해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구 개발 지원책도 소개됐다.

백승호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혁신기



관 그랜드 투어는 도내 우수 농생명 첨단 인프라를 전북 식품기업들에게 소개

하고 기업지원방안에 대해 안내하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도교육청 ‘제1회 전북 교육발전대상’ 후보자 모집

전북 교육 발전 기여 인물 선발... 수업 혁신·혁신 경영·교육 헌신·교육 협력 4개 부문으로 진행

수상자 교육감 표창·전북교육 명예 전당 헌액·전북교육 홍보대사 위촉·200만 원 지원금 부상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 교육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교직원 및 도민을 발굴·시상하는 ‘제1회 전북 교육발전대상’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처음 공모하는 전북 교육발전대상은 우리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노고를 기리고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공모 부문은 ▲수업 혁신 ▲혁신 경영 ▲교육 헌신 ▲교육협력 4개이며, 부문별 각 1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4일

까지이며, 공공기관·지자체·시민단체·법인·개인 추천 및 본인 지원도 가능하다.

AI와 디지털 교육 전환 등 수업 혁신을 선도한 교직원, 혁신 경영으로 성과를 이루고 조직 문화를 개선한 기관장, 교육봉사·기부 및 의정활동 등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육 가족, 교육투자

전북교육청은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 방문 실사,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오는 5월 23일 최종 수상

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표창, 전북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 전북교육 홍보대사 위촉과 200만 원의 지원금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전북 교육발전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알림존을 확인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전북교육의 도약을 위해 ‘전북 교육발전대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계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널리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



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분들의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양오봉 총장과 학생들 ‘소통의 장’

대학가 식당서 총학생회장 등 50여명 학생 만나 의견 수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8일 대학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과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교 운영과 학생 복지 향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 구민기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자치기구 임원과 일반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소통간담회는 대학가 인근 식당에서 열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학생과 총장이 함께 맥주잔을 기울이며 학교생활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학업과 학교생활의 균

형 문제부터 학습 환경 개선, 자율적 학생활동 지원 확대 등 평소 체감하는 다양한 문제와 건의사항을 총장과 교수진에게 전달했다. 참석한 보직교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민기 총학생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개선사항을 총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는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중독 치료 지원 강화

전국 최초 상급종합병원과 도박 중독 치료 업무협약 체결... 도박중독치유센터 운영 도박 중독 학생 전문의학적 치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 도박 예방 및 중독 치료를 위해 지난 19일 5층 회의실에서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도박문제치유센터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원광대학교병원은 ▲도박 중독 학생의 상담·진단·치료에 관한 관리 및 지원 ▲도박 중독 위기로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교수·학

습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생 도박 문제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및 운영 등의 역할을 한다.

전북도박문제치유센터는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학생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 등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학생 도박에 대한 체계적·선제적 예방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

병원과의 업무협약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상급종합병원인 도박중독치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도박 중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전문의학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예산 지급 등 학생 도박 예방 및 중독 치료를 위해 이들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서

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손정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도박 예방교육, 중독 치료 서비스 제공 등 학생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주)에코인투 ‘맞손’...뉴업New-UP디자인과정 운영 위한 협약체결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자 개인 심리·목표·성향 분석 기반하여 개인화된 솔루션 제공...학생들 경력 개발·성장 도움 기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미래융합대학은 (주)에코인투(대표 성은숙)와 ‘뉴업New-UP(業) 디자인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에코인투는 AI 특허 기반 퇴직솔루션 ‘화답하다’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 경영 서비스 및 퇴직전략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조직문화 및 역량 진단에서 맞춤형 퇴직 프로그램까지 기업과 퇴직자 모두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과 (주)에코인투는 각 기관의 인

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관리를 강화해 성인 학습자의 경력 개발과 성장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한동승 학장은 “(주)에코인투의 ‘뉴업 New-UP(業) 디자인 과정’을 통해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성인학습자 개인의 심리, 목표, 성향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개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목표에 맞는 경력 개발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주)에코인투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우석대,이동섭국기원장임만규전 현대차공장장초청특강

태권도학과·전기자동차공학부·수소에너지공학과 재학생 등 300명 참석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19일 전주 캠퍼스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이동섭국기원장과 임만규 전 현대자동차 공장장의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대학일자리본부와 진로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특강은 2025년 전문가 초청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강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태권도학과와 전기자동차공학부,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재학생 등 300명이 참석했다.

1부 특강에서 이동섭 국기원장은 ▲스포츠 산업 동향 및 취업 전략 ▲태권도와 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취업 전략 ▲국내외 스포츠 기관 및 단체 취업 기회 ▲스포츠 비즈니스 및 태권도 브랜드화 전략 등에 대해 소개하고, 태권도의 세

계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2부 특강에서도 임만규 전 현대자동차 공장장은 ▲수소에너지 기반 자동차 산업 트렌드 ▲현대자동차 입사 및 커리어 전략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변화 및 수소차 기술 동향 등을 설명하면서, 향후 수소에너지 기반의 자동차 산업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특강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생들이 더욱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www.khnp.co.kr



무주양수발전소

무주양수발전소는 무공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이 왜?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심야전력, 주간 잉여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저수지의 물을 위치가 높은 상부저수지로 끌어 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저장된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양수발전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파수 조절 및 정격전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무주양수홍보관 관람정보

- ▶ 개관시간 : 주중 09:00 ~ 17:00(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 ▶ 휴 관 일 : 주말 · 공휴일 · 신정 · 설연휴 · 추석연휴 · 기타 회사 기념일 및 지정일
- ▶ 관람신청
 - 전화문의 : 070-4000-2141, 2144 / FAX : 0502-734-0543
 - 인터넷신청: www.khnp.co.kr/한수원 방문신청 / SMS인증 / 무주양수 전시관
- ▶ 주 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788 「무주양수홍보관」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



(주)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안전 그라운드 룰 선포식' 진행

지난 18일 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은 군산공장에서 자발적 안전수칙준수 문화를 결의하는 '안전 그라운드 룰 선포식'을 시행했다. 선포식에는 세아베스틸 흥성원 군산공장장을 비롯해 세아베스틸 및 파트너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세아베스틸은 안전 그라운드 룰 도입으로 안전수칙 준수 문화 확산 및 안전행동 변화를 통해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과 군산공장 지속 운영 의지를 선포했다. 안전 그라운드룰은 세아베스틸 임직원 참여하여 공모된 518건의 수칙 중에서 선정하여 수립하였고, 기본 안전수칙(5개), 공통 작업 안전(10개), 공정별 안전수칙(10개)으로 3분류의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아베스틸 흥성원 군산공장장은 선포식 기념사 통해 "안전 그라운드 룰은 단순한 규칙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며, 군산공장을 무재해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천 원칙이다. 안전은 결코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협력할 때, 비로써 우리가 바라는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한다"라고 선포했다.

안전 다짐록 작성, 안전 그라운드 룰 배지 체결식 및 노사 공동 선언문 낭독 등으로 선포식을 진행하였고, 그라운드 룰 홍보와 참여 문화 형성을 위해 공장 내 안전그라운드 룰 포스터 부착과 캠페인 등 활동을 실시하였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K-관광섬 붐맞이 온라인 SNS 행사 개최

군산시가 서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군산 K-관광섬(고군산군도)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붐맞이 사회관계망(SNS) 홍보 행사를 오는 20일부터 개최한다. 행사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월별로 진행되며 군산 K-관광섬 인스타그램(gunsan_k_island/군산 k-관광섬) 팔로워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k-관광섬(달도·평도·방축도) 초성 맞추기 퀴즈 이벤트가 열리며, 4월에는 14일부터 18일까지 'K-관광섬(고군산군도) 신춘문예' 주간이 운영된다. 5월에는 K-관광섬 N행시 백일장이 대미를 장식한다.

군산시는 이번 홍보 행사와 함께 고군산군도와 K-관광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고군산군도 및 K-관광섬의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단' 가동 시작

익산시는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단(T/P)'을 구성하고, 지난 1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공모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강영석 부시장을 비롯해 김영희 복지교육국장 등 관련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전북 라이즈 사업 설명 ▲익산시-대학 라이즈 협력 추진 경과 보고 ▲동행 협력 지역발전 과제 등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학 측에 전달한 후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공동 신청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산북천 유역 침수 항구적 예방

총 사업비 2,175억 원 투입… 대조지구연동지구 재해예방사업·난포교 재가설 사업 등

익산시가 산북천 유역의 반복적인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23년(하류부)과 지난해(상류부) 연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북천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총 사업비 2,175억 원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우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대조지구 재해예방사업(총사업비 548억 원)'은 올해 국비가 확정돼 오는 11월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연동지구 재해예방사업(총사업비 550억 원)'은 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으며, 예산을 확보해 실시설계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는 연동 제수문 수리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숙원인 '난포교 재가설' 사업도 순항 중이다. 이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을



시는 산북천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총 사업비 2,175억 원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비롯한 여러 기관이 협력해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산북천 수해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335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 있으며, 오는 5월 착공 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산북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개

년 동안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경진 건설국장은 "산북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장기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시민과의 대화' 성료… 주민 건의 적극반영

총 1800여 명 시민들과 질의응답… 도로·농로 포장·농배수로 정비 등 143건 건의사항 접수

정읍시가 9일간 23개 읍·면·동을 방문하며 진행한 '2025 시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4일 영원면에서 시작한 18일 내장상동까지 이어진 이번 행사는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학수 시장은 총 1800여 명의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챙겼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도로 확·포장 및 농로 포장, 농배수로 정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개설, 복지택시 운행 개선, 노후 다리 보수,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143건이 접수됐다.

이 시장은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를 지시했으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



토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혼란스러운 정국과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편에 서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대화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처리 계획을 건의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필요한 사항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 시민 제안 공모전' 실시

최우수상 100만 원 시상금… 공모 주제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더 살기 좋은 도시'

군산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정책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 우리들의 군산 2025년 군산시 시민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더 살기 좋은 도시이다.

접수된 시민의 제안은 실무부서 사전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7개의 우수 제안이 결정된다. 특히 시

는 우수 정책을 제안한 시민과 관련 부서의 공무원을 민관 정책팀으로 구성해,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게 만들 계획이다. 이후 오는 8월에 있을 경진대회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100만 원(1명), 우수상 50만 원(2명), 장려상 10만 원(4명)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시상금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제안 공모 접수 기간은 내달 30일까지이며,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가운데,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메일(pjw6483@korea.kr)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기획예산과(454-269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주차 고민 없는 익산,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도입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주차 공간 확인·사전 정산·미납요금 확인·정기권 신청·대리주차예약 등

익산시가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유료 공영주차장 10개소(750여 면)에 인공지능형 통합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양경진 익산시 건설국장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사업'이 다음 달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주요 기능은 ▲내 주변 주차장 위치와 실시간 주차 가능 공간 안내 ▲최적의 주차장 추천 ▲사전 결제로 신속 출차

▲미납요금 확인과 간편 결제 ▲모바일 대리주차 예약 등이다. 대리주차 예약의 경우 익산역 인근에 있는 익산역 공영 주차타워와 송학 공영주차장, 역골지구 공영주차장 3곳에서 시행된다.

또한 월 단위 정기권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돼 장기 주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상가 이용객을 위한 주차 쿠폰 구매를 추가 운영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 내로 스마트 주차장 사

업의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오는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영동1동 공영주차장 ▲영동2동 공영주차장 ▲모현동 제1공영주차장 ▲모현동 제2공영주차장 ▲모현동 제3공영주차장 ▲모현동 제4공영주차장 ▲문화 공영주차장 ▲역골지구 공영주차장 ▲송학 공영주차장 ▲익산역 공영 주차타워 등 10곳이다.

시는 향후 모든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축제행사, 시민 의견으로 채워갑니다!

축제 시민평가단 '군산축제채움단' 모집… 양행 현장 평가 진행

군산시가 축제 시민평가단인 '군산축제채움단'을 모집한다.

'군산축제채움단'은 시민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축제를 내실 있게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다.

평가단은 총 50명으로 구성되며 공개모집(40명)과 군산시 소재 기관·단체 추천(10명 이내)으로 선발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올해 동안 군산시 대표 축제 및 행사(공당보리축제, 수제맥주페스티벌, 문화재야행, 군산시간여행축제, 진포예술제, 짬뽕페스티벌)를 직접 방문해 양행 현장 평가를 진행한 뒤 현장 사진과 평가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표를 기준에 맞게 제출한 평가단에게는 소정의 평가 수당이 지원된다.

활동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군산 시민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5층)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전자우편(niji5305@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은경 기획예산과장은 "시민이 직접 축제 평가와 개선 과정에 참여해 축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 중심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10주년 공모

'백제역사유적지 슬로건 공모전' 개최… 당선작 홍보물 등 활용

익산시가 (재)백제세계유산센터(이사장 김기영)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길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지난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1인 최대 5건까지 응모할 수 있고, 온라인(forms.gle/GaNK5fQyUHYuQSh19)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응모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당선된 슬로건은 국가유산청,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재)백제세계유산센터의 누리집을 비롯해 홍보물과 정책자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누리집(www.baekje-heritage.or.kr)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02-2233-4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농기계임대사업소, 영농철맞아 토요일 근무 확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토요일 근무를 실시한다.

또 오는 4월부터 6월까지의 5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오전 8시부터 조기 운영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선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5개 권역에서 운영되며 94종 1688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 주요 작물에 적합한 농기계를 배치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돕고 있으며, 농기계화 축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혜택을 지속 제공

한다.

임대한 농기계는 사용 후 반납 시 정기 점검을 거쳐 노후 부품을 수리·교체하며 농업인이 최상의 상태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출고 전 운전 방법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번기에는 농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사전예약제를 적극 활용하면 원활한 임대가 가능하다.

사전예약는 사용일 기준 15일 전부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한 농기계는 사용 전날 오후 5시까지 출고해 이른 아침부터 바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대한장애인 트라이애슬론 연맹, 익산에 자리 잡아

대한장애인 트라이애슬론 연맹이 익산을 거점으로 삼고, 종목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지난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2023년 창립한 대한장애인 트라이애슬론 연맹은 지난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정 단체 승인을 거쳐 지난달 정식 가맹 승인을 받았다.

연맹의 이번 입지 선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익산에는 국내 유일의 상시 국제 철인3종 경기장이 위치해 있다. 또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체육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연맹은 앞으로 2025 하계 강화훈련,

KPC 파라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심판 강습회 등 다양한 대회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익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전지 훈련지로 각광받게 되면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선수단 및 관계자 방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연맹 유치에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견인하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황당 특혜 의혹 강력 대처”

권익현 부안군수, “근거 없는 음해 즉각 중단하라… 군정 흔들기 좌시하지 않겠다”

부안군은 최근 제기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 군수 아들 특혜채용…명백한 허위 주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아들이 ㈜자광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의 아들은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으며 2023년 11월 자진 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권익현 군수는 “특혜 채용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날조”라며 “근거 없는 발언으로 특정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아들이 변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 변산관광휴양콘도 사업과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안군정 관광과가 해당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변산면 근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 변산 관광휴양콘도 사업, 투명한 절차 추진 중

부안군은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4월 전라북도, 부안군, ㈜자광홀딩스 간 3자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2년 12월 토지 매매계약이



권익현 부안군수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아들이 ㈜자광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뤄졌다.

이후 2023년 12월 업체 측이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 납부 연장을 요청했고 부안군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2024년 12월까지 1차 연장을 승인했으며 추가 연장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조건부 승인했다.

특히 부안군은 “계약금 28억원과 계약 이행 보증금 100억 원을 확보해 만일 업체가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총 128억원을 군 예산으로 귀속시키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토지 특혜 매각·공무원 시험 부정… 터무니없는 주장

부안군은 “모든 토지 매각은 교차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 가격에 진행된다”며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특혜 매각’ 운운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허위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수 아들의 공무원 시험 합격이 부정행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오늘날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황당한 억측”이라며 “사실 확인도 없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 근거 없는 선동 즉각 중단하라… 강력 대응 예고

부안군은 “객관적 사실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허위 주장으로 군정을 흔들려는 시도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유지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서립공원 유아숲체험원 개장

오는 11월까지 계절별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은 지난 17일 유아숲체험원을 개장하고 11월까지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이 숲에서 놀며 자연을 배우고 사회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지역 아동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장소이다.

서립공원 유아숲체험원은 10,000㎡의 규모로 조성돼 버마다리, 그물팡팡, 흔들다리, 암벽오르기, 인디언집, 토끼굴, 모래놀이터, 그네 등 유아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서립공원 무장애나눔길 산책로를 따라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들을 할 수 있는 자연 속 숲 교실의 기능을 한다.

또한, 유아숲체험원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유아숲지도사들이 상주해 수시형·정기형 계절별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놀이 활동을 지도한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이 숲체험 활동을 통해 신체 발달과 면역력 증진은 물론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친화적인 양질의 산림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물 관리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어르신 목욕비’ 지원

부안군은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통해 작은 목욕탕이 없는 읍·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5만원을 지원해 건강과 위생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르신들이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를 통해 협약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안군은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을 포함해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을 함께 소개했다.

먼저 ESG 환경사업인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을 통해 환경 보호에 앞장 서며, 지구 온도 1℃를 지키는데 기여한다.

이어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 부안으로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사업을 발굴해 부안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다양한 복지 사업과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주시면, 더 많은 사업을 통해 부안군의 미래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제15회 결핵예방의 날 맞이 결핵 예방 캠페인 실시

고창군이 제15회 결핵예방의 날(매년 3월24일)을 맞아 결핵예방주간(3월23~29일)을 운영하며 지난 18일 고창전통시장에서 결핵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65세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이라는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기침·재채기 할 때 입과 코 가리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실내 환기하기,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태 개선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결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결핵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을 기울인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2025 자원봉사 활동처 교육 및 간담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18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활동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73개가 등록돼 있으며, 이날 활동처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및 맞춤형 선택 교육 진행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각 기관의 활동처 관리자들이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과 관리에 힘쓰고 계신 점에 대해 항상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김제시의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여행경비 지원…지역 소비 촉진 기대

오는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관외 지역 거주자 등 조건 충족한 60팀 지원

고창군이 본격적인 봄 축제 시즌을 맞아 ‘여행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여행경비 지원은 벚꽃축제가 시작되는 오는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이고 총 60팀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행경비 지원조건은 ▲관외 지역 거주자 ▲사전신청 ▲숙박 1박 이상 ▲고

창 9경 1개소 이상 방문 ▲벚꽃 또는 청보리밭 축제장 방문 ▲식당·카페·특산품 중 1개 이상 방문 ▲SNS 게시물 업로드 ▲영수증 총합 20만원 이상이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선착순으로 20만원 이상 소비 시 10만원, 30만원 이상 소비 시 15만원, 40만원 이상 소비 시 20만원을 고창사랑카드로 환

급해준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고창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 소비 촉진과 체류형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해 고창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106년전 그날의 함성, 원평장터에 다시 울려 퍼지다

제36회 원평장터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김제 지역 최초 독립만세 운동 정신 되새겨

1919년 기미년, 김제 지역 최초의 독립만세 운동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제36회 원평장터기미독립만세운동 106주년 기념행사가 19일 원평장터 기념광장에서 개최됐다.

원평장터기미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ச்ச준)와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김왕배)가 공동 주관하고 김제시(시장 정성주)와 전북서부보훈지청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기념행사는 관내 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독립투사 유가족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3.1 만세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원평장터기미독립만세운동은 김제 향토사학자인 최 회춘식 선생의 수년



간 노력으로 1988년, 재판기록물 발굴을 통해 ‘김제군사’, ‘전라북도사’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묻힐 뻔했던 독립투사들의 유족들이 독립운동유공자로 등

록될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올해로 36회째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부산 동래구와 교류 확대 및 상호 협력 강화

고창군이 19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양 도시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도시인 부산 동래구의 개청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고창군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식 행사들이 진행됐다.

공식 기념행사를 앞두고 열린 자매도

시 환영오찬에서는 부산 동래구의 자매도시인 고창군, 옥천군 관계자들이 만나 향후 교류 사업 활성화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인 대외협력 강화에 대한 뜻을 모았다.

이후 진행된 기념식수 제막식에 참석하고, 고창군의 축하영상이 상영돼 자리를 더욱 빛냈다. 축하영상에서는

고창군의 진심 어린 메시지와 함께 두 도시의 우정과 앞으로의 협력 의지를 담아내며, 참석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개청식 계기로 고창군과 동래구가 더욱 가까워지고, 상호 발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총 26개 평가별 추진 계획 및 실적 점검 나서

고창군이 지난 17일 2025년 주요평가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점관리평가 10개와 함께 각 부서 대표 평가 16개 등 총 26개의 평가에 대해 평가별 세부 추진 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성과 달성을 위해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고창군은 지난해 종합점령도 평가 1

등급,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및 농기계 임대사업 최우수군 선정 등 50여건의 기관표창과 함께 7여여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모범적인 행정능력을 뽐냈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올해도 주요 평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고창군의 행정력을 인정받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자동차산업 고용플랫폼 본격 시동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9일 김제 일자리센터에서 지역 자동차산업의 고용창출과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위한 자동차산업 고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 13개소와 일자리 유관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 김제분원, 한국폴리텍대학, 덕암정보고등학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자동차산업의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고용 거버넌스 확장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주요내용은 ▲관내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 동향 ▲김제일자리센터 2025년 주요 추진사업 안내 ▲기관 및 기업별 소개 등 다양한 정보 교

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발굴·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시와 김제일자리센터는 올해 더 촘촘하고 확장된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김제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식품 2개 분야 고용플랫폼을 신설하고,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2개 분야 고용플랫폼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자동차·식품 고용플랫폼을 통해 김제시 산업과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 효산콘도 매각…도심 활성화 기대

8차 공매 끝에 ㈜코리아시티 매입 확정, 공매대금 8억3천만원 납부 완료
도심 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시, 인수업체 지원 약속

남원시는 20번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남원 효산콘도(신촌동 367번지)에 대해 민선8기 2022년 10월 말부터 8회 집중 공매를 추진한 결과, 3월 17일 공매대금 8억3천만원을 최종 납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사용승인을 받은 효산콘도(지상 9층, 지하 2층, 객실 284호)는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숙박업소로 자리매김하는 듯 했으나, 경기불황과 모기업의 부도로 지방세 체납이 누적돼왔다. 20년이 넘도록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를 크게 해치고 있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인수위 단계부터 효산콘도 활성화를 주요 현안사업으로 선정하고 효산콘도의 투자 장점을 부각하며 적극적으로 재공매를 추진한 결과,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4차례 낙찰자가 결정됐으나, 잔금 미납 보증금으로 중단된 세수가 11억원에 이르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던 남원 효산콘도가 20년 만에 매각돼 도심 미관 개선과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고 한다.

매각이 결정된 ㈜코리아시티는 수도권지역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도심 미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원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방지된 집합건물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왔는데, 지난해 하이츠콘도에 이어 올해 효산콘도까지 주인을 찾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인수업체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전국 최초 ‘청렴헌장’ 공포…청렴행정 강화

반부패·청렴도 향상 실천 의지 담아…신뢰받는 조직·공정 행정문화 확산 도모

완주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렴헌장 규칙’을 공포했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청렴헌장 규칙’은 2025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완주군의 청렴정책 참여 및 실천 의지를 담았다.

청렴의 생활화를 통한 부패절결, 공명정대한 업무 추진, 알선·정탁 근절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군은 청렴헌장을 통해 조직 내·외부의 신뢰를 쌓아 청렴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 청렴헌장 선포식, 청렴헌장 배포, 각종 군민참여 행사 시 완주군 청렴

실천의지 강조 등을 통해 청렴헌장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렴헌장을 통한 청렴 실천력을 강화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완주군을 만들겠다”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청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故 백은 김상열 선생 송덕비 제막식 거행

故 백은 김상열 선생 송덕비 제막식이 지난 19일 쌍치면 둔전리에 위치한 훈몽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윤준식 쌍치면 민회장, 송진원 백은장학회 이사장, 유족 대표인 장남 김병성을 비롯해 관내 사회단체장과 둔전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이번 송덕비 건립은 김상열 선생이 지난해 12월 89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쌍치면민회를 중심으로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2,0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지난 2월부터 추진됐다.

최영일 군수는 축사에서 “울산김씨 종중과 든든한 재경향우 원로로서 늘 따뜻한 애향심과 탁월한 혜안으로 우리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상열 선생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면서, “저도 선생의 인재 양성 정신을 이어받아 내실있는 교육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열(金相烈, 1935~2024) 선생은 쌍치면 중안마을 출신으로, 조선 중기



훈몽재 복원 및 장학 사업에 헌신한 故 백은 김상열 선생 송덕비 제막식이 지난 19일 쌍치면 둔전리에 위치한 훈몽재에서 개최됐다.

의 대학자인 하서(河西) 김인후(1510~1560)의 14대손이다. 젊은 시절 상경해 냉면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으며, 이후 하서 선생의 뜻을 계승하고자 하서학술재단과 수당재단의 이사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장학 사업에 헌신했다.

특히 2005년, 대장유산 발굴조사를 통해 쌍치면 둔전마을에서 조선시대 김인후 선생이 운영했던 훈몽재 옛 터가 발견되면서, 순창군이 훈몽재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 때 이 과정에서 김상열 선생은 자신의 인접 부지를 기부해 2009년 훈몽재 중건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16년에는 사재 3억 원을 기부해 ‘백은장학회(柏隱獎學會)’를 설립하고,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 순창군 인재 양성에 힘썼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순창군민의 장 ‘애향장’을 수상한 바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억원 돌파

맞춤형 답례품 58종 지정기부채 도입 참여 유도…청소년 인재 양성에 기부금 활용 확대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5년 3월 14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억 원을 넘어섰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중심의 답례품 58개를 발굴해 제공하고 있으며, 출항인 및 관내 기관·단체·기업 대상 방문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기부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 운영, 시정소식지 및 감사서한문 발송, 각종 이벤트 등 기부

자 예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우님들과 시민, 단체 여러분 한분 한분의 정성과 협조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부금을 활용해 남원시 청소년 인재양성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

제)와 답례품(기부금 30% 이내)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모인 기부금으로 2024년에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지원(중학생 24명, 2억원) 및 남원제일고 현장실습용 푸드트럭 지원(1대, 8천만원) 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특정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해 ‘2026년 남원 인재학당 기자재 구입 지원’을 목표로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문화재단, ‘꿈의 극단’ 예술 교육 공모 선정

신규 거점기관 최종 선정…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 정착 목표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꿈의 극단’ 신규 거점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꿈의 극단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과 연극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협력과 소통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5년간의 예술 교육 사업이다. 완주문화재단은 이번 선정을 통해 연극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예술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으로 완주문화재단은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매년 1억원의 국비를 정액 지원받으며, 4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국비 50%,

군비(완주군) 50%의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6년 차부터는 지역 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예술 교육 모델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꿈의 극단 ‘완주’는 연극과 움직임, 음악이 결합된 창작 교육을 통해 단원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단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창작 레퍼토리를 구축해 11월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정기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완주군 초등학교 4~6학년으로 하며, 오는 4월 완주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등과 협력해 모집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 재난안전관리위원회 개최…축제 안전 강화 총력

순창군은 지난 18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영일 군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염기남 부군수를 비롯해 이상일 순창소방서장, 이정호 순창경찰서장, 남상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유관기관 대표와 공공기관장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순창군 안전관리계획(안)’, ‘2024년 재난관리실태 공시(안)’, 그리고 곧 다가오는 ‘옥천골 벚꽃축제’, ‘군민의 날’, ‘전국노래자랑’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상정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옥천골 벚꽃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 전국노래자랑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행사장 내 안전시설 점검, 구급 인력 배치, 교통 통제, 폭염·호우 등 기상 악화 시 대처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 내 재난 예방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최영일 군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각종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서와 유관기관에 심의 결과를 3월 중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연중 지속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대둔산축제 체험·먹거리 등부스 운영 참가자 모집

완주군이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2025 완주 대둔산 축제’ 부스 운영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약 20개소로, 모집 대상은 도내 거주 주민 또는 소재를 둔 마을, 공동체, 단체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부스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과 먹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축제는 ‘너의 도전 앨범에 저장해 봐, 대둔산 모먼트!’를 슬로건을 내걸고 대둔산 도립공원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대둔산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도전적인 등반 코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판매가 이뤄질 계획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가산점 항목 등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대표 누리집 또는 전화(063-290-39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완주 대둔산 축제’는 매년 여름 대둔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진행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완주의 자연경관과 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청년협의체 위원 모집…‘직접 만드는 청년 정책’

남원시가 민선8기 청년정책을 함께 할 제3기 청년협의체 위원을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3기 청년협의체 위원으로 선발되면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2년이며, 남원시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 제안, 의제 발굴, 모니터링, 청년축제 기획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제3기 청년협의체는 남원 청년마루 청년동아리 사업과 연계해 동아리 활동비를 분과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문화 선진지 벤치마킹,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 청년협의체가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남원시 기획예산과 인구청년팀(063-620-609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전담 기술감사팀 운영 재정누수 사전 차단

남원시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이하 심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인력 육성 및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해 감사담당관 내에 ‘기술감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7일자로 전문인력 3명을 확보해 기술감사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기술감사팀은 공사 등의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의 적정성 및 계약방법 검토 등 사전컨설팅 지원 ▲건설중인 공사현장 점검 ▲하자 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심사의 실효성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한편 체계적인 기술감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심사사례 및 심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축적·관리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구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발주 사업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예산 운영의 효율성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단식 투쟁 19일차…건강 악화돼

단식 19일차를 맞은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그동안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점차 커져왔다.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이 의원의 건강 상태는 위기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고, 오늘은 탈수 증상 등 추가적인 증상까지 나타나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의원의 상태는 군의회 직원 및 완주보건소에 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보건소 측은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단식투쟁을 지켜보던 동료 의원들은 “취직된 날씨와 나이를 고려했을 때 단식은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오늘 단식투쟁 19일째를 맞이한 이 의원의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판단해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이주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해산’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내달 9일까지

순창군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일 동안 2025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통해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7,0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4월 9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해 오는 4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정읍 신태인도서관, 농부의 삶 글로 남긴 이동호 작가 강연

농부의 삶을 글로 남긴 이동호 작가가 정읍 신태인도서관에서 독자와 만난다. 내달 5일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얻은 소박한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나눌 예정이다.

이동호 작가는 정읍 태생으로,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농사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 태인으로 귀농했다.

농부로 살아가면서, 자연의 소리에 따라 하루를 보내며 경험한 일들을 글로 남겼고 그 글들은 조카의 손을 거쳐 '어느 고독한 농부의 편지'라는 책으로 출간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도시의 경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농부의 정겨운 사계절을 들려주며, 땅에서 배운 삶의 지혜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씬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신청은 정읍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도서관 담당자(539-6442)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주시립국악단, 3월 문화가 있는 날 '本郷(본향)' 공연 마련

전주시립국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심상욱)은 오는 26일 덕진예술회관에서 3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本郷(본향)'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주시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본 고향'임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에서는 고려와 조선 시대부터 연주돼 온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궁중음악과 민속음악을 깊이 있고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本郷(본향)'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나루컬처(www.naruculture.com, 1522-6278)에서 예매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진안지점, 진안군에 1,370만 원 기탁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 126명 마음으로 모은 기부금... 2023년·2024년에 이은 세 번째 기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진안지점이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9일 전북은행 전상익 부행장과 진안지점(지점장 강태호) 직원들은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기 위해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 126명이 마음으로 모은 기부금 1,370만원을 군에 기탁했다. 전북은행 직원들은 진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



지난 19일 전북은행 전상익 부행장과 진안지점 직원들은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 126명이 마음으로 모은 기부금 1,370만원을 진안군에 기탁했다

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기탁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기탁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은 세 번째 기탁으로 지역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강태호 지점장은 "고향사랑 기부라는 작은 실천으로 향토 은행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은 물론 고객에게도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거동 불편한 이웃 휠체어 후원

박경희 전주병원 고문 "우리 지역의 건강과 복지 발전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 이어가겠다"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대표 최정웅)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주시에 휠체어 12대(60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

전주시는 지난 19일 전주시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경희(의)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고문, 김상호 (사)건강나눔경영위원회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휠체어를 기증하는 것을 기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된 휠체어는 평화사회복지관을 통해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2대씩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후원은 이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희 전주병원 고문은 이날 "우리 지역의 건강과 복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대표 최정웅)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주시에 휠체어 12대(60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



군산 황금코다리소통점, 어르신 '사랑의 점심' 대접

소통동 맞섬으로 알려진 황금코다리 소통점(대표 주행식)이 관내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점심'을 대접해 주변을 훈훈하게 했다.

군산시 소통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황금코다리 소통점이 어르신 38명을 위해 식사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착한가게에 가입해 꾸준히 정기기부를 해 오며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

뜻한 손길을 전해왔다.

이번 행사를 마친 황금코다리 소통점 주행식 대표는 앞으로 꾸준한 나눔 실천을 약속해 의미를 더했다.

주행식 대표는 "작은 정성이 담긴 식사이지만 관내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받은 사랑과 관심을 돌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이평면 새마을부녀회, 따뜻한 반찬 나눔

정읍시 이평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경숙)가 지난 18일 홀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정성이 담긴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양념돼지불고기, 무생채 등 영양을 고려한 반찬을 손수 준비해 관내 40세대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반찬은 수성동 공유냉장고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와

이평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이웃돕기 물품 기탁, 자원봉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박경숙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 죽향동, 풍년제과 하정동커피제과 후원 받아 어르신 돌봄 강화

죽향동장(임점숙)은 관내에 있는 풍년제과 하정동커피(대표 이기연)에서 제과 후원을 받아 돌봄 지원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및 특히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연중 찾아가 간다.

공동체 돌봄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 이후 동장은 매일 돌봄이 취약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풍년제과 하정동커피에서 후원한 맛있는 제과류를 전달한다.

금년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집중 방문하여 식사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하정동커피(대표 이기연)는 평소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제과 지원 외에도 지역 주민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아낌없는 나눔을 약속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이서면, 농업인 단체 모여 풍년기원제 열려

완주군 이서면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본부,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들이 모여 풍년기원제를 열었다.

지난 19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농업인들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군의회 의장, 지역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한해의 풍년과 이서면민들의 안녕을 기원했다. 풍년기원제는 콩쥐팍쥐농악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민요와 고고장구 공연이 펼쳐지며 흥겨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전택균 이서면 농촌지도자회장은 "올해는 모든 농작물이 잘 자라고, 수확의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나눔 활동

이웃과 함께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활동이 지난 19일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신청사(하곤로 72)에서 진행됐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 주관하고 IBK기업은행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 등록 봉사단체인 늘사랑봉사단, 지조봉사단 회원 20여 명이 음식 재료 손질, 조리, 배식 등 300인분의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고 이·미용 재능을 가진 봉사자들의 재능나눔과 익산시청 복지정책과에서 혈압, 혈당 체크, 익산시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 나눔과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이웃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식사 나눔을 함께한 늘사랑봉사단 이영의 단장은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온기 가득한 식사 한 끼를 전달하게 되어 무척 뿌듯하고, 2025년에도 이웃들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환절기 건강 관리법

습도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



일교차 주의



환기는 필수



〈一事一言〉



내란 불면증이 망가뜨린 한국인의 정신건강(2)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은 통상적으로 갑질,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희롱 따위로 구설수에 오르곤 하는데, 이것은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정신장애가 가학증임을 보여준다. 반면, 평범한 서민층에서 성장한 사람은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 그에게는 주변에 분노를 표출할 만한 대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 계급이나 계층이 아니라 개인적 차이도 가학증이나 아니면 우울증이나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은 가학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 분노를 자기를 향해 돌리기보다는 타인과 과 세상을 향해 병적으로 분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착한 사람은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 착한 사람은 분노가 아무리 심해도 그것을 납득한데 파보자 못하거나 꺼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득권층, 못된 인간을 대표하는 부자병이 가학증이라면 보통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우울증에 특별히 취약한 것은 극소수 기득권층을 제외한 나머지 절대다수가 평범한 보통 사람에 속하기 때문이고, 극소수의 악인을 제외한 절대다수는 비교적 선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나날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여전히 착해서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개혁의 좌절로 인해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

인의 행복지수는 낮은 편이다.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이 3월 6일에 발표한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지난해 8~9월에 전국의 19세 이상 825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한국인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으로, 전년(6.7점)보다 0.1점 올랐다. 원래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경제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인의 행복감은 별다른 변동 없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행복감은 19~29세와 30대가 7.0점, 40대와 50대가 6.8점, 60세 이상이 6.6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서구 나라들에서의 행복감은 젊은 시절에 높았다가 중장년기에 조금 낮아지고 노년기에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꿈과 희망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청년기에 행복감이 높아야 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세대는 한국 역사상 최악이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당수의 청년은 꿈과 희망을 잃어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해야 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경우에는 청년의 행복감조차 나이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낮은 편이다. 서구 나라에서도 사회적 생존과 성공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 중장년기에는 행복 수준이 떨어지지만 노

년기에 들어서면 다시 행복 수준이 올라간다. 그것은 서구의 노인들은 중장년기에 축적한 재산으로 은퇴 뒤 노년기에 안전한 생활을 즐기거나 적어도 경제적 빈곤이 한국보다는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인은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관계로 중장년까지도 끊임없이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하고 그 결과 노년기에 들어서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한국인에게 노년기란 빈곤에 허덕여야만 하고 그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소원해지는, 고독하고 외로운 시기가 되곤 한다. 어쨌든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한국인이 청년기부터 그다지 행복하지 않으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불행해지는 암울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의하면 또 한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최저소득 집단의 행복감이 전년의 6.1점에서 6.0점으로 낮아진 반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인 최고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전년의 6.8점에서 7.0점으로 상승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행복 불평등으로도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급속한 정신건강 악화로 고통받고 있으며 행복보다는 불행에 더 익숙해져가고 있는 한국인들은 자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 1위에 오른 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심각했던 한국의 자살률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7.3명으로서 2013년(28.5명) 이후 최대치에 도달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2021년 26명, 2022년 25.2명으로 소폭이지만 줄어들고 있었는데 2023년에는 27.3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극단적으로 파괴하고 행복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자살을 강요해 온 것이다. 앞선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 일당의 내란으로 인해 한국인의 심신과 삶은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만일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고 사회대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인의 정신건강은 위태로운 임계점을 훌쩍 넘어서게 될 것이고 한국인들은 끔찍한 불행의 늪에 잠겨들어 자살의 길로 질주하게 될 것이다. 내란 진압과 사회대개혁에 반드시 성공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끝〉

본 칼럼은 시민연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서해안철도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인프라

전북과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 8개 지방자치단체가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건설 국회 정책포럼'은 이 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전북·전남도지사와 군산, 부안, 고창, 영광, 함평, 목포 등 주요 시군 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17명, 그리고 교통·철도 전문가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서해안철도는 단순한 철도 노선의 신설이 아니다. 수도권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일 국가적 인프라다. 현재 군산에서 목포까지 끊긴 철도망이 연결된다면, 서해선(경기-충남)과 장항선(충남-전북)을 아우르며 인천에서 목포까지 하나의 간선 철도망이 완성된다. 이는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서해안 경제벨트의 완성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군산~목포 구간은 개통 시 이동 시간이 무려 79분이나 단축된다. 이는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수도권과 서해안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막대하다. 서해안권은 이미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 개발이 추진 중이며, 이 철도가 완공되면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서의 성장이 가능하다. 기존의 산업·물류 거점 기능은 더욱 강화되고, 관광 활성화 역시 기대된다. 서

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수도권과 효율적으로 연결해 지역 관광 수요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까지 가져다 줄 것이다.

무엇보다 서해안철도는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해안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 축을 다변화하고, 낙후된 서해안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해법이 될 것이다. 철도망의 확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의 개선이 아닌 지역과 지역을 잇는 혈관이고, 경제와 문화를 순환시키는 대동맥이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서해안철도는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업이다. 특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자, 국가 경쟁력의 밑그림이 되는 전략계획이다. 여기에 서해안철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것이다. 전북과 전남을 비롯한 호남권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촉구한 이번 건의는 지역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다. 정부는 이에 화답해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서해안철도 건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문화재열전



홍복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물, 불교조각, 불상
-지정일- 2000년 6월 23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김제시 흥사동 263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별관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당신의 하루를 여는 신뢰의 뉴-스,
전북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 5층

대표전화 063)282-9601 팩스 063)282-9604

국립민속국악원, 2025년 어린이 체험형 국악극 〈별이와 무지개다리〉 초연

반려견과 특별한 만남 통해 배우는 사랑과 책임, 어린이 눈높이 국악극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9일 토요일,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체험형 국악극 『별이와 무지개다리』 *를 초연한다.

이번 공연은 국악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와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기획된 작품이다.

* 원작 『별이와 무지개다리』, 『별이와 지구별』, (로하이후복스 하나 원작)

『별이와 무지개다리』는 반려견 ‘별이’와 어린이 ‘지율이’의 만남과 이별을 중심으로, 사랑과 책임의 가치를 전하는 이야기를 국악과 창작 안무로 풀어냈다.

강아지라는 친숙한 캐릭터를 매개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체험형 요소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연출과 각색은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김세희 단원이 맡았고, 국악연주단 소속 단원들이 주요 배역으로 출연한다. ‘별이’와 ‘지율이’를 비롯해 유기견 보호소의 강아지 친구들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국악 선율과 안무로 표현되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총 2회에 걸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무대에서 진행된다.

관람 대상은 36개월 이상이며, 공연 시간은 약 70분이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로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 2025. 3. 20.(목) 10:00부터 누리집 (<http://namwon.gugak.go.kr>)에서 예약 가능

『별이와 무지개다리』는 강아지별 ‘꾸슈랄라’와 지구를 오가며 펼쳐지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반려견 ‘별이’와 소녀 ‘지율이’의 아름다운 만남과 이별을 그린 창작 국악극이다. 또한, ‘무지개다리’, ‘플라스틱 쓰레기 섬’ 등 상징적인

공간을 통해 생명과 이별, 책임의 의미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악적 요소와 무용, 노래가 조화를 이루며, 관객과 함께하는 참여형 형식을 통해 몰입감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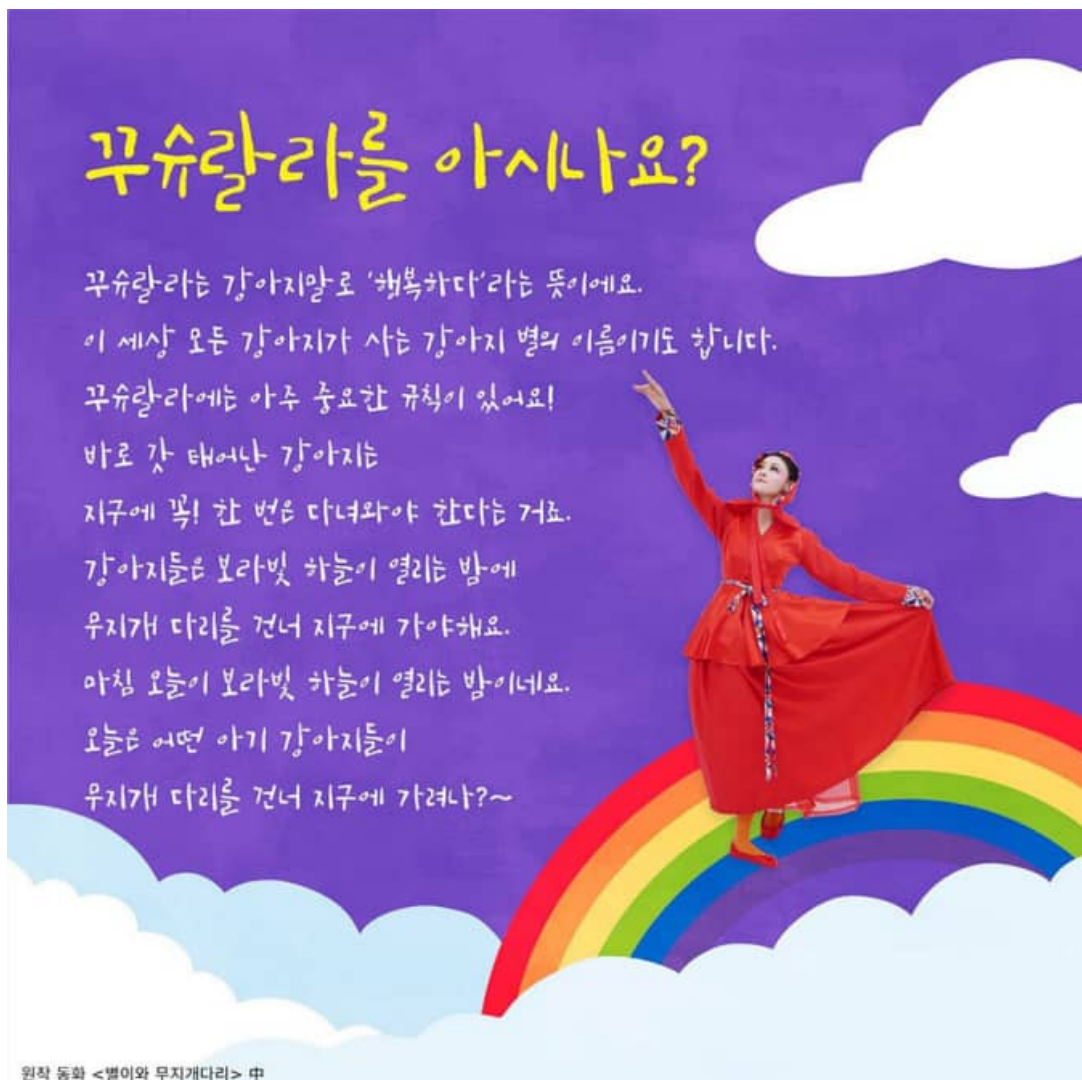
아울러 전통 모자와 장식, 입체적 무대와 영상 효과 등을 활용해 동화 같은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반려동물이 가족이자 책임져야 할 존재임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작품이다.

김중현 원장은 “이번 작품은 아이들이 국악을 통해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는 세

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및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 추가), 전화(063-620-23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원작 동화 <별이와 무지개다리> 중



새로운 L 농협
대한민국 농협

사계절맛 제철기부

사시사철 365일 기부가 제철입니다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 기부는 장수군으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고향사랑e음
<http://ilovegohyang.go.kr>

사시사철 늘 맛있는 우리쌀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우리 제철 농축산물을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함께 합니다

NH 농협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농협
※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반환 불가)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김성수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조합장 박점용

#별의 효능

쌀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근육을 키우며 속을 편안하게 해
기분을 좋게 하며 혈액을 순환시킨다.
또한 소화기능을 개선
아랫배의 불쾌감을
심미 요법의 훌륭한 약제이다.

- 국립민속국악원 창작곡